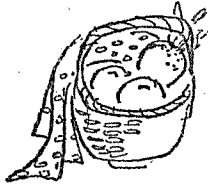


암의 정체를 그 치료법



■ 윤 택 구

암은 외부에서 침투한 병균으로 생긴 병이 아니다

암은 외부로 부터 우리몸 속으로 침입한 세균이나 기생충에 의하여 발생되는 병은 아니다.

우리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여러가지 기전에 의하여 무제한하게 증식하는 성질을 가진 세포의 집단 즉 악성화된 세포의 집단을 암이라 한다.

즉 암은 밖에서 침입한 세균에 의한 감염증이나 전염병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생기는것이므로 암은 사람몸의 일부분이라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무제한 증식하여 여러가지 치명적인 신체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잃게된다.

또한 암은 우리몸 어느곳에서나 발생할수 있으며 발생한 부위에 따라 위암, 자궁경암, 유암, 간암, 직장암 등 여러명칭으로 불리운다. 또 육종이라하여 몸속의 결합조직이나 뼈, 연골, 근육, 임파조직, 혈관 등에 생기는 악성종양은 세포의 종류가 다른 뿐 의학적으로 암에 속하며 백혈구가 악성으로 되면 암의 일종인 백혈병이라 불리운다.

암과 양성 종양의 다른점은

암이 양성종양과 다른점은 처음발생한 부위에서 점점 크게 증식하다가 암조직을 구성하는 암세포는 탈락되어 임파액이나 혈액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 암세포는 원발부위와 인접되어 있는 임파선에 옮겨가 다시 증식하는것이 보통이며 나중에는 간장이나 폐장 또는 골수에 옮겨가게 된다.

이와같이 암세포가 몸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현상을 전이라고한다. 암이 처음에 발생한 부위에 국한하여 증식하여 준다면 양성종양과 같이 잘라내면 되지만 전이되어 몸속에 분산되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곤란할뿐 아니라 멀지 않아 다시 재발하게 된다.

이와같이 암은 무서운 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세계의 의학자들은 물론 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들의 끊임없는 암을 정복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암환자의 치료성과는 놀라운 정도로 달라져 최근에는 「암은 고칠수 있는 병」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5년이상 살아야 치료판정 내리고

암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또는 약물요법으로 구분되며 암의 발생시기와 암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로 이들을 병행 치료하게 된다. 대부분의 암은 이들 치료로서 완전히 제거되거나 소실되지만 암세포가 전부 사멸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어 결국 멀지않아 생명을 잃게 된다. 따라서 암환자에 있어서의 치료효과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얼마나 많은 암환자가 5년이상 생존하였느냐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와같은 판단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암환자가 5년이상 생존하였을 경우 암이 퇴치되어 있음을 의미함은 물론 재발될 가능성도 극히 적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기에 발견 치료해야 「고칠수 있는 병」이다

암은 왜 「고칠수 있는 병」이라 할수 있는가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남자에서 발생하는 암중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위암(약 30%)의 경우 각종 위암환자가 치료를 받은후 5년이상 생존한율은 25~30%밖에 되지 않으나 암이 위벽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기에 조기진단된 환자중 90%가 5년이상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중 흔히 볼수 있는 자궁경암(약 40%)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중위까지 침범된 말기 암환자의 10%내지 30%에서만 5년 이상 생존하고 인접

임과절에만 침범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40~60%에서 5년이상 생존이 가능하지만 자궁경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기 발견된 환자의 70~85%가 5년이상 생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에서 두번째로 많은 유암(약 8%)에 있어서는 인접 임과절까지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45%의 5년생존율을 보이나 임과절의 전이없이 유방에만 국한되어 있는 유방암환자는 80%이상에서 5년 이상 살고 있다.

이와같은 암환자에서의 좋은 치료 효과는 위암, 자궁경암, 유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암에서 얻어지고 있으며 결국 암은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서 「고칠수 있는 병」이라 할수 있게 되었다.

5년 이상 생존자 점차로 증가현상

이와같은 암치료계의 성과는 1930년대에 치료후 5년이상 생존자가 5명중 1명 미만이었다던것이 1950년대에 4명중 1명으로 호전되었고 1960년대에 3명중 1명으로 향상되었으며 금후 2명중 1명이란 목표를 세워 암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완치시킬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만으로는 질병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개개인이 서로 서로 노력함으로써 질병을 확인받을 수 있는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이환될지 모를 암을 고칠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누구나 적절한 조기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필자=원자력연구소 암병리연구실장·의학>